

# EU 「AI 대륙 행동계획」 분석

• • • •  
2025-05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2025-05]

EU 「AI 대륙 행동계획」 분석

# Contents

I. 서론 .....	1
II. AI 대륙 행동계획 5대 분야 .....	3
III. 결론 및 시사점 .....	19

\* 「AI Continent Action Plan(2025.4)」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하고 정책 시사점 도출



## 요 약

■ **현재 AI가 경제의 핵심 분야에 도입되고 사회적 과제 해결에 활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EU의 경쟁력 제고와 민주적 가치 수호,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추구하며 AI 미래 지형을 전략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 수립 필요성이 부각**

-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중심적 AI'는 경제 성장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뒷받침하는 기본 권리와 원칙 보존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
-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지속되고 혁신을 통해 AI의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기술의 '개발'과 '활용' 부문을 모두 선도하는 리더십 구축이 필요
  - 현재 EU의 AI 생태계가 연구, 신기술, 스타트업 등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AI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모델 개발 증진, 경제 전반의 광범위한 기술 도입이 불가피
  - 특히 대규모 단일시장, 숙련 인력 풀과 같은 EU의 자체 강점과 핵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AI에 대한 고유의 접근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이에 EU는 AI 분야 선도 대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AI 대륙 행동계획 (AI Continent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강화가 필요한 5대 핵심 영역을 도출**

- AI 선도 대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5대 핵심 영역으로 ①연산 인프라 ②고품질 데이터 ③알고리즘 개발·도입 ④AI 인재·스킬 ⑤단일시장의 규제 간소화를 선정하고 세부 정책 조치를 제시

■ **(연산 인프라 구축) 인프라, 특히 연산 역량은 AI 모델 개발 전 과정뿐만 아니라 인재 유치와 생태계 강화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역내 연산 역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EU, 회원국, 가입 후보국 간 협력 증진**

- (AI 팩토리 구축·확장) 'AI 팩토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슈퍼컴퓨터로 구성된 EuroHPC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모든 사용자가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 (AI 기가팩토리 투자) 역내 AI 기가팩토리에 투자하여 최첨단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데이터 용량을 확보

- (지원 프레임워크 구축) 현재 EU의 데이터 센터 용량이 미국·중국에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AI 모델의 수명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연산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에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 마련

■ (AI 데이터 공유 증진) 오류 없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는 AI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향후 「데이터 연합 전략」을 수립해('25년 3분기) AI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제공 확대 조치를 추진

- 「데이터 연합 전략」은 기업·공공부문·사회의 요구와 데이터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 및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산업 간 상호 운영성과 데이터 접근성을 증진하여 역내 데이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
  - '데이터 랩(Data Labs)\*'은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동일 분야의 여러 AI 팩토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연동하고 관련 '공동 유럽 데이터 스페이스'와 연결해 AI 개발용 데이터 제공 역할 담당
- 이와 관련해 집행위 차원에서 데이터 스페이스 공유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 시행, 건강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수립 등을 추진 예정
  - ▲데이터 스페이스를 보다 쉽게 관리·연결하기 위한 공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Simpl' 개발 ▲고품질 언어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단일시장의 언어 장벽 해소 도모 ▲회원국 간 건강 데이터 공유·재사용 체계 수립 등 시행

■ (EU 전략 부문의 혁신 촉진 및 AI 도입 가속화) 현재 중소·중견 기업을 비롯한 다수 기업이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AI 적용 전략」, 유럽디지털 혁신허브 등을 통해 유럽산 AI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

- 산업 전반의 AI 솔루션 도입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도출하는 것이 「AI 적용 전략」의 목표로, 데이터 접근성, 인재·스킬 개발 및 강화, 계약 자동화 등의 산업 분야별 과제 대응 조치를 제시 예정
- '25.12월부터 유럽디지털혁신허브(EDIHs)를 AI체험 센터(Experience Centres for AI)로 전환해 AI 도입에 주력
  - ※ 자금조달 자문, 네트워킹, 교육과 같은 유럽디지털혁신허브의 기존 서비스를 지속하되 각 산업의 AI 솔루션 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AI 활용 측면에 집중하고, AI 팩토리 생태계와 긴밀히 협력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예정
- AI 솔루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시장 진출까지 기술 개발 프로세스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GenAI4EU 이니셔티브를 통해 동 분야 연구·혁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 **(AI 스킬 및 인재 강화) 인재 부족과 부문 간 스킬 불일치 문제를 해소를 목표로 EU 근로자와 시민의 효과적인 AI 활용을 뒷받침하는 리스킬·업스킬 조치 중점 추진**

- (AI 전문가 풀 확대) 역내 차세대 AI 전문가 교육·훈련, 유럽 AI 인재의 유출 방지 및 회귀 장려, 역외 국가의 AI 숙련 인재 유치·정착에 주력
- (업스킬링·리스킬링) 직장과 사회 전반에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의 AI 활용 역량 업·리스킬링 지원

■ **(규제 준수 및 간소화 촉진) 「AI법\*」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AI법 서비스 데스크’를 설치하고 기업의 「AI법」 준수 용이화 및 법령 간소화 가능성을 모색**

\* EU 시장 진입을 위한 조건 통일, 국경 간 자유로운 유통, 원활한 AI 단일시장 운영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제정('24.8 발효)

■ **캐나다 정부의 세계 최초 국가 AI 전략(Pan-Canadian AI Strategy, '17) 발표 이후 전 세계 주요국이 관련 정책을 앞다퉀 수립하며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16.10 수립, '23.5 개정),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AI이니셔티브법 2020」('21.1) 등을 통해 AI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확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또한 AI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시행
- (중국) AI 개발·응용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체계화된 전략인 「차세대 AI 발전규획」('17.7) 수립 이후 「차세대 AI 개발을 위한 3개년 실행계획」('17.12), 「AI와 실물경제의 심층 융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19.3) 등을 마련하며 전반위적으로 AI 정책 추진
- (일본) AI R&D 정책 컨트롤타워로 AI기술전략회의('16.6)를 설치하고 「AI 전략 2019」('19.11), 「AI 전략 2022」('22.4),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23.6 개정) 등을 수립하고 R&D, 혁신, 인프라 기반 정비 등을 도모

■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AI) 국가전략\*」('19.12)에서 AI 생태계 조성 과 인재 양성 등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 과제를 도출한 데 이어, 「국가 AI전략 정책방향\*\*」('24.9)을 수립해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AI 혁신 비전을 제시**

\* 글로벌 선도적 AI 생태계 조성, 전 생애·전 직군 AI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차세대 지능형 정부 전환, 사람 중심 AI 실현 등을 목표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 제시

\*\* AI G3국가 도약을 통한 글로벌 AI 중추 국가 실현 비전을 수립하고 범국가적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최신 GPU 15배 확충, 4년간 65조원 규모 민간 AI 투자, '30년까지 산업 AI 도입율 70%, 공공 95% 달성, 글로벌 AI 거버넌스 주도) 추진 도모

-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옥스퍼드 인사이츠\*가 평가한 '24년 정부 AI 준비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88개국 중 3위를 차지하며 AI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
- 다만, 국내기업의 약 78.4%가 경영활동에 AI 기술 적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 활용률은 30.6%(제조분야 23.8%) 수준에 그쳐 기업의 AI 활용 증진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대한상의 '24.8)
  - AI 기술 미활용 기업 중 약 49%는 향후에도 도입을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현재 AI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술·IT 인프라 부족(34.36%), 비용 부담을 지목(23.1%), 기술 불필요(21.9%), 신뢰성 문제(10.1%), 인력 부족(6.1%) 등이 지목
  - 정부에 바라는 정책 과제로 AI 분야 투자 및 R&D 지원(51.4%), AI 인프라 구축(25%), AI 인재 양성(10.2%) 등이 도출

**■ 따라서 우리 기업·산업의 AI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국제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인프라 투자·확장, 데이터 생태계 고도화, 산업 특성에 맞는 AI 활용 지원 체계 마련, 인재 양성 등의 조치를 보다 심화하는 것이 중요**

- (인프라) 연구계·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AI 슈퍼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 모색
- (데이터) 데이터 품질과 접근성이 AI 경쟁력의 핵심 기반에 해당하는 만큼, 개발자와 기업이 고품질 데이터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데이터 공유·유통 생태계 조성 및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가속화
- (지원 체계) 제조·에너지·서비스 등 각 산업 부문 특성에 맞는 AI 도입 촉진 및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기업 유형별 AI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 (인재) 산학연 협력, AI 특화 교육과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 육성 및 기존 인력 리스킬링 증진 등
  - ※ 이와 관련해 지난해 산업부에서 「산업현장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AI+R&D 추진전략」('24.10)을 수립하고 AI 융합 기술개발 확산 기반 조성, AI개방 혁신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만큼 국내 업계의 AI 활용 증진에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원문정보 】**

- EC, AI Continent Action Plan, 2025.4

## I. 서론

■ **현재 AI가 경제의 핵심 분야에 도입되고 사회적 과제 해결에 활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EU의 경쟁력 제고와 민주적 가치 수호,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추구하고 AI 미래 지형을 전략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 수립 필요성이 부각**

-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중심적 AI’는 경제 성장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뒷받침하는 기본 권리와 원칙 보존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
-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지속되고 혁신을 통해 AI의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기술의 ‘개발’과 ‘활용’ 부문을 모두 선도하는 리더십 구축이 필요
  - 현재 EU의 AI 생태계는 최첨단 기반 모델, 전문적인 AI 응용 프로그램 등의 연구, 신기술, 스타트업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환경에서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하려면 EU, 회원국,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모델 개발 증진, 경제 전반의 광범위한 기술 도입이 불가피
- 특히 대규모 단일시장, 숙련 인력 풀과 같은 EU의 자체 강점과 핵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AI에 대한 고유의 접근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 〈 EU의 강점과 핵심 역량 〉

- 일원화된 안전 규칙\*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EU 핵심 가치와의 부합성을 확립할 수 있는 대규모 단일시장

\* (예)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24.6)

- 역내 수준 높은 연구·과학 역량과 과학자·숙련 전문 인재 풀
- 활발한 스타트업·스케일업 부문과 산업 노하우·전문 지식
- 개방형 데이터 스페이스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연산 능력 기반

- 실제 유럽의 개방형 혁신 모델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유럽 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EuroHPC)’으로 구축된 최첨단 슈퍼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EU의 연산 역량이 대중에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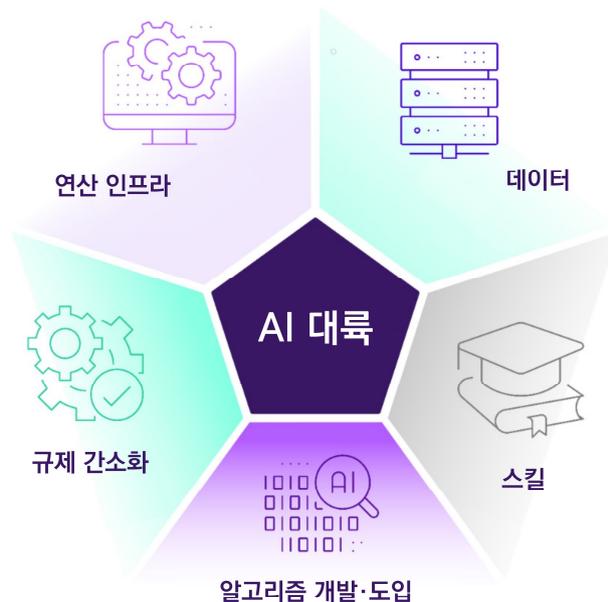
\* 개방형 환경을 제공해 AI 혁신가와 연구기관이 모델 훈련·조정을 위해 연산 자원을 활용하고, 최첨단 모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오픈소스 방식 기반의 역내 AI 모델을 개발하여 지식 공유 촉진, 협업 활성화, 전문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 용이화, 투명성 제고 등의 편익을 확보함으로써 유럽 AI 스타트업·스케일업 생태계의 급성장을 뒷받침
- 다만, 현 지정학적 상황에서 EU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혁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산업, 공공 부문, 연구 부문이 AI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치사슬과 단일시장 복원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

■ 이에 EU는 AI 분야 선도 대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AI 대륙 행동계획(AI Continent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강화가 필요한 5대 핵심 영역을 도출

- AI 선도 대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5대 핵심 영역으로 ①연산 인프라 ②고품질 데이터 ③알고리즘 개발·도입 ④AI 인재·스킬 ⑤단일시장의 규제 간소화를 선정하고 세부 정책 조치를 제시

〈그림 1〉 AI 대륙 행동계획의 5대 영역



## II. AI 대륙 행동계획 5대 분야

### 1.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 인프라 구축

■ **인프라, 특히 연산 역량은 훈련-미세조정-테스트-보급의 AI 모델 개발 전 과정\*뿐만 아니라 물론 인재 유치와 생태계 강화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훈련)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대규모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고성능 첨단 AI 프로세서를 빈번하게 활용 ▲(미세조정)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맞춰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단계 ▲(테스트) 모델이 학습과 검증을 거친 후 성능을 평가받는 단계 ▲(추론·보급) 모델의 결과물과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되는 단계

- 이에 EU와 회원국은 유럽 전체에 연산 역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EU 가입 후보국 등과 협력을 추진할 필요

■ **(AI 팩토리 구축·확장) ‘AI 팩토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슈퍼컴퓨터로 구성된 EuroHPC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모든 사용자가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 AI 팩토리는 동 분야 혁신·협업·개발을 촉진하는 역동적 생태계로, AI에 최적화된 슈퍼컴퓨터, 대규모 데이터 자원, 프로그래밍 및 교육 시설, 인적 자원을 통합하여 최첨단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창출하는 데 기여
  - 슈퍼컴퓨팅 센터, 대학, 스타트업, 산업, 공공 부문, 금융 부문을 연결해 유럽의 AI 협업을 강화하고 여러 분야의 AI 애플리케이션 발전을 촉진 가능
  - 대규모 국가 데이터 저장소, EU 데이터 스페이스, 전용 데이터 랩 등과 연계해 고품질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 AI 팩토리 이니셔티브 현황 〉

- ‘AI 팩토리 이니셔티브’ 1, 2차 공모를 통해 총 13개의 AI 팩토리 유치기관(총 17개 회원국, 2개 EuroHPC 참여국이 관여)이 선정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총 13개 AI 팩토리가 운영될 경우 '21~'27년 동안 총 100억 유로가 역대 슈퍼컴퓨팅 인프라와 AI 팩토리에 투입될 전망
- '25년 2분기 마감되는 3차 공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로, 참여 국가는 전용 슈퍼컴퓨터 인프라 없이도 AI 팩토리 안테나\*를 구축해 자국의 AI/HPC 생태계를 지원 가능
  - \* 타 회원국의 AI 팩토리 네트워크 자원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

- 한편 EU는 '25~'26년 9대의 신규 AI용 슈퍼컴퓨터를 EU 전역에 배치하고 기존 슈퍼컴퓨터 1대도 AI를 추가해 업그레이드 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EuroHPC의 AI 컴퓨팅 용량이 3배 이상 확대될 전망
- '25년 말까지 AI 팩토리과 AI 팩토리 안테나를 전면 가동·상호 연결하는 한편 테스트 시설 및 유럽디지털혁신허브 네트워크 등의 주요 AI 지원 이니셔티브와도 연동 예정
- 'EuroHPC 공동사업'은 역내 사용자들이 EuroHPC AI 팩토리의 연산 자원과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단일 진입점 역할을 담당
  - AI 팩토리는 업계, 연구기관,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유럽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 단, 맞춤형 접근 모드(access mode)를 도입해 AI 혁신 기업과 EU 출자 연구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행정 절차로 연산 자원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집행위 및 EuroHPC 주요 계획 〉

- 선정된 AI 팩토리과 해당 서비스 구축·운영 ('25년 2분기)
- 유럽 전역의 모든 사용자가 AI 팩토리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단일 진입점 구축 ('25년 2분기)
- 첫 번째 AI 최적화 팩토리용 슈퍼컴퓨터 조달 시작 ('25년 2/3분기)
- AI 팩토리 안테나 구축을 위한 제안 공모 시작 ('25년 2분기)
- 모든 AI 팩토리 및 AI 팩토리 안테나 사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안 공모 시작 ('25년 2분기)

■ (AI 기가팩토리 투자) 역내 AI 기가팩토리에 투자하여 최첨단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데이터 용량을 확보할 계획

- 지난 2년 동안 AI 모델이 텍스트 처리에서 추론, 다중 모드 기능, 주체적 행위(agentive behaviour)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며 복잡성이 증대되는 추세
  -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차세대 첨단 AI 모델은 인간에 필적할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AGI)으로 도약 예상
  - 현재 가장 성능이 우수한 AI 팩토리의 슈퍼컴퓨터는 최대 25,000개의 첨단 AI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으나, 향후 차세대 첨단 AI 모델을 선도하려면 보다 큰 연산 역량과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경쟁력 나침반\*」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AI 기가팩토리에 투자 예정

\* (Competitiveness Compass)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혁신 과제와 지원 조치 제시

- AI 기가팩토리는 수백 조 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복잡한 AI 모델을 전례 없는 규모로 개발·학습시키는 대규모 시설로, 유럽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과학 발전과 핵심 산업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
  - \* 첨단 AI 프로세서 100,000개 이상의 막대한 연산 능력을 통합하는 한편 전력 용량과 에너지, 수자원 효율성, 순환성을 고려하는 것이 특징
  - AI 기가팩토리는 EuroHPC AI 팩토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유럽 AI 생태계 전반의 지식 공유와 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유럽 내 AI 프로세서 설계·제조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한편,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분야 주권 강화 및 칩 에너지 효율성·보안 확립 등을 목표로 「칩스법(Chips Act, '23.9 발효)」 개정 준비 작업을 가속화할 방침('26)
- 단일 AI 기가팩토리 설립에 막대한 투자(자본 지출, 운영 비용 등)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공공-민관 파트너십과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방식이 사용되게 될 전망
  -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는 AI 기가팩토리 최대 5곳 등 AI 인프라에 200억 유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InvestAI 기금\*' 출범을 발표하고, 회원국과 지역 정부가 AI, 클라우드, 기가팩토리를 비롯한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
    - \* (InvestAI Facility) EU 예산, 회원국 보조금·보증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유치하기 위한 기금으로, 유럽투자은행(EIB)과 협력하여 개발 예정
  - 대표적으로 민관 파트너십 체계에서 EU와 회원국이 국가보조금규정(State aid rules)에 따라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면 민간 제안자 측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InvestAI 기금이 투자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 담당 가능
    - ※ 이때 AI 기가팩토리는 대규모 국제 금융 투자자의 참여를 유치하는 플랫폼으로 기능
- EU는 경쟁력 측면에서 명확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AI 기가팩토리 설립 참여의향서를 모집하고\*\*, 회원국, 업계,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가팩토리 설립을 공식 공모할 계획('25년 4분기)
  - \* AI 기가팩토리는 「경쟁력 나침반」이 제시한 경쟁력 조정 수단의 시범 사례로 활용될 예정
  - \*\* 개발 제안자들과 파트너십 구성, 예산안, 지리적 위치, 연산 성능, 기술 사양, 가속가능성 요건, AI 기가팩토리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단계
  - 이때 여러 투자기금을\* 바탕으로 범용인공지능(AGI) 등 새로운 AI 모델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나, EU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 조달 또한 혁신 제품·서비스 시장 창출 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
    - \* ▲유럽혁신위원회기금(European Innovation Council Fund) ▲TechEU 스케일업 기금(TechEU Scale-up Fund, 현재 계획 단계에 해당) ▲유럽투자은행(EIB)의 유럽기술챔피언 이니셔티브(European Tech Champions Initiative) ▲InvestEU 보증 등

- 「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Startup and Scale Up Strategy)」을 통해서는 혁신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자금 조달, 공공 조달, 시장, 서비스, 인재 확보 용이화 방안을 모색 예정

〈 집행위 및 EuroHPC 주요 계획 〉

- AI 기가팩토리에 대한 투자 의향서 모집 공시 ('25.04.09)
- 유럽투자은행과 함께 InvestAI 기금 정의 ('25년 3/4분기)
- EuroHPC 공동사업을 통해 AI 기가팩토리에 대한 공식 공모 개시 ('25년 4분기)
-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자금 조달 격차를 해소하고 「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 (Startup and Scale Up Strategy)」을 통한 시장, 공공 조달, 서비스, 인재 접근성 개선 ('25년 2분기)

■ (자원 프레임워크 구축) 현재 EU의 데이터 센터 용량이 미국·중국에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으로, AI 모델의 수명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연산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에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 마련이 불가피

\* AI 모델 실행 및 추론 작업의 핵심 요소인 일반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등이 대표적

- EU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역외 인프라에 크게 의존하면서 경제 안보 위험이 초래되고 유럽 산업, 주요 경제 부분, 공공 기관에 대한 우려 제고
  - 기업과 공공기관의 AI·일반 컴퓨팅 수요 충족 및 경쟁력과 주권 확보를 위해 역내 클라우드·데이터 센터 용량을 지리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해야 하는 상황
- 「클라우드·AI 개발법(Cloud and AI Development Act)」 제정 시 데이터센터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어 역내 대규모 클라우드·엣지 시설 투자를 증진하는 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유럽에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인허가 및 관련 환경 승인에 평균 4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데이터센터 업계도 적정 부지와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EU는 이러한 행정 문제를 완화하여 향후 5~7년 내 EU 데이터센터 용량을 최소 3배, '35년까지 EU 기업과 공공 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라우드·AI 개발법」 제정을 추진
  - 이를 위해 집행위는 자원 효율성 요건\*을 충족하여 환경 및 주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지원을 제공할 계획
    - \*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성, 순환성, 혁신 관련 요건 등
  - 「클라우드·AI 개발법」을 통해 AI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유스케이스의 운영 자율성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역내 클라우드 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공공 부문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AI를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기존 「데이터법(Data Act, '24.1월 발표)」의 클라우드 전환 규정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서비스 시장 조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

- 「에너지 부문 디지털화 및 AI 전략 로드맵\*」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시스템 통합 촉진 및 국내 데이터센터 대거 구축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관련 과제\*\* 해소 방안을, 「물 복원력 전략\*\*\*」은 관련 시설의 수자원 발자국 감축 및 순환성 제고\*\*\*\* 방안을 제시 예정

\* (Strategic Roadmap for Digitalisation and AI in the Energy Sector) 「청정산업딜」의 주요 조치로서 '26년 수립 계획

\*\* 전력망 최적화, 건물·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수요 측 유연성 등

\*\*\* (Water Resilience Strategy) 물 부족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금년 발표 계획

\*\*\*\* 물 재사용, 효율성 제고, 건식 냉각 등

- 한편, 집행위는 공개 협의의 일환으로 「클라우드·AI 개발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클라우드·AI 지원 프레임워크 관련 조치를 현재 회원국이 설계 중인 2가지 유럽공동이익 프로젝트(IPCEI)\*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예정

\* ①연합형 및 분산형 AI 서비스 관련 연구·상용화 관련 IPCEI ②대규모 연산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관련 IPCEI

#### 〈 집행위 주요 계획 〉

- 「클라우드·AI 개발법(안)」 채택 ('25년 4분기~'26년 1분기)
  - ※ 이를 위한 공공 의견 사전 수렴 진행 ('25.04.09)
- 에너지 부문의 「디지털화 및 AI 전략 로드맵」 수립 ('26년)
- 회원국의 향후 AI 및 데이터 처리 인프라 분야 유럽공동이익프로젝트(IPCEI) 설계 작업 지원

## 2. AI 데이터 공유 증진

■ **오류 없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는 AI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향후 「데이터 연합 전략」을 수립해('25년 3분기) AI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제공 확대 조치를 추진할 방침**

- 「데이터 연합 전략(Data Union Strategy)」은 기업·공공부문·사회의 요구와 데이터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 및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산업 간 상호 운영성과 데이터 접근성을 증진하여 역내 데이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
  - 이와 관련해 공유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안성 확립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데이터 관련 법규를 간소화하여 복잡성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도모할 계획
  - 동 전략은 데이터 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의 EU 데이터 규정 준수 방식 간소화를 통한 AI 공유·활용 용이화, 고가치 데이터 유치 방안 모색, 국제 공유시 민감 데이터 보호 등을 추진 예정
    - ※ 「데이터 연합 전략」 수립과 관련해 기업, 공공 부문, 연구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구체적인 데이터 수요 파악, 제안된 조치 조정 등을 모색할 방침
- '데이터 랩(Data Labs)\*'은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동일 분야의 여러 AI 팩토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연동하고 관련 '공동 유럽 데이터 스페이스\*'와 연결해 AI 개발용 데이터 제공 역할 담당
  - \* AI 팩토리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AI 개발자가 건강·에너지·기타 분야의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세트 정제·보강, 기술 도구(표준화된 형식, 합성 데이터, 공유 기술 구성 요소 등) 제공, 산업/국경 간 상호운용성 촉진 등을 뒷받침
  - \*\* (Common European Data Space) 역내 데이터 활용·재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공유 시스템
- 「데이터 거버넌스법\*」 체계를 바탕으로 기업이 반독점 규정을 준수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취합(data-pool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분산된 데이터 자원을 AI 개발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
  - \* (Data Governance Act) 데이터 활용·공유를 증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으로, 공동 유럽 데이터 스페이스 개발을 지원('22.6월 발효, '23년 9월 시행)
- 이와 관련해 집행위는 데이터 스페이스 공유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 시행, 건강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수립 등을 추진 예정
  - 데이터 스페이스를 보다 쉽게 관리·연결하기 위한 공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Simpl\*'을 개발하여 데이터 스페이스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
    - \* 데이터 교환 시 보안 강화, 접근 관리, 신원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기술적 복잡성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데이터 스페이스 확장 및 참여자 확대에 기여

- 단일시장의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대규모 언어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를(ALT-EDIC\*, '25년 3월 발족) 바탕으로 고품질 언어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 17개 회원국의 고품질 언어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다언어 데이터 격차 해소, 유럽의 언어적·문화적 다양성 보존 등을 도모할 계획으로, 단일시장의 언어 장벽이 제거될 경우 역내 무역이 최대 3,600억 유로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유럽 건강 데이터 스페이스 규정\*」에 따라 회원국 간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재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수립함으로써, 의료 분야의 AI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편향성을 줄이고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European Health Data Space Regulation) 역내 전자 건강 데이터 사용·교환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구축을 도모('25.3월 발효)
-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데이터 스페이스인 '유럽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European Open Science Cloud)'의 경우 연구기관에서 수집한 대규모의 고품질 연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그 외 코페르니쿠스(Copernicus)를 통해 AI 기술 개발을 위한 지리·공간 데이터를 제공

〈 집행위 주요 계획 〉

- 업계의 데이터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 의견 수렴을('25년 2분기) 거쳐 「데이터 연합 전략」 공개('25년 3분기)
- AI 팩토리화 연계된 데이터 랩(Data Labs) 설치 ('25년 3분기~4분기)
- 유럽 공동 데이터 스페이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및 AI 팩토리와의 연계 강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25~'27)
- \*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유 기술 요소 및 공통 소프트웨어 사용 등

### 3. EU 전략 부문의 혁신 촉진 및 AI 도입 가속화

■ 현재 중소·중견 기업을 비롯한 다수 기업이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AI 적용 전략(Apply AI Strategy)」, 유럽디지털혁신허브 등을 통해 유럽산 AI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계획

\* '24년 기준 EU 내 AI 도입 기업은 13.5%에 불과

- 그 외 과학계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유럽 과학 분야 AI 전략(European Strategy for AI in Science)」을 수립해 생산성 제고 및 과학 혁신을 도모할 방침

■ (유스케이스 기반 접근방식) EU가 선도하는 핵심 산업\*과 공공 부문의 AI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AI 적용 전략」 수립 추진

#### 〈 「AI 적용 전략」 초점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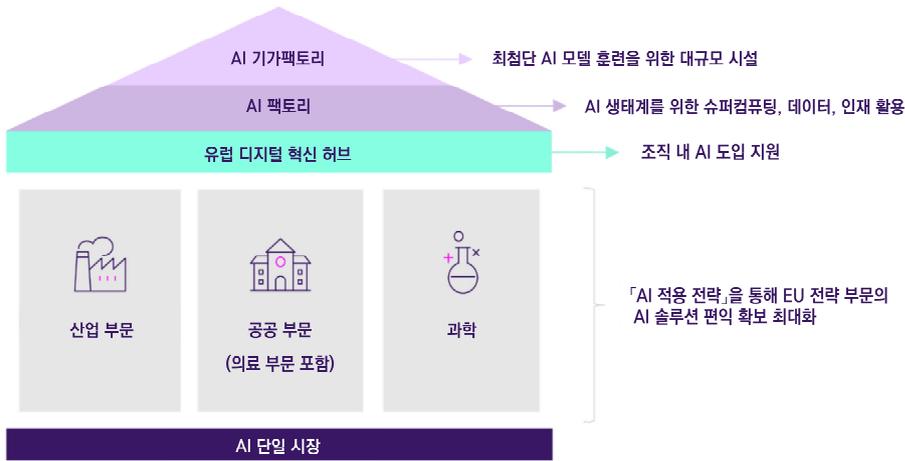
- (핵심 산업) 첨단 제조, 항공우주, 안보·국방, 농식품, 에너지·핵융합 연구, 환경·기후, 모빌리티·자동차, 제약, 바이오테크, 첨단소재 설계, 로봇공학, 전자통신, 문화·창조산업, 과학 부문 등은 AI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공공 부문) 의료, 사법, 교육, 공공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개선에 AI를 활용
  - ※ 장애인용 솔루션 개발, 장벽 제거 등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로 AI 활용 가능

○ 산업 전반의 AI 솔루션 도입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도출하는 것이 동 전략의 목표로, 데이터 접근성, 인재·스킬 개발 및 강화, 계약 자동화 등의 산업 분야별 과제 대응 조치를 제시 예정

- AI 팩토리/기가팩토리, 유럽디지털혁신허브, 테스트 및 실험 시설, 「데이터 연합 전략」, AI 기술 아카데미와 같은 지원 수단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발전 동향과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EU AI 사무국(EU AI Office)의 관측소 설치를 제안

※ EU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 모집,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와 과제 파악, 가능성 있는 해결방안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AI 적용 전략」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스케일업을 포함한 업계 대표, 공공 부문과 체계적인 논의를 개시

〈그림 2〉 「AI 적용 전략」 구조



■ (유럽디지털혁신허브) '25.12월부터 유럽디지털혁신허브(EDIHs)\*를 AI체험 센터 (Experience Centres for AI)로 전환해 AI 도입에 주력

\* (European Digital Innovation Hubs) 기업과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로서('23.1월 운영 시작), 현재 10개 회원국·후보국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의 85%를 포괄

- 자금조달 자문, 네트워킹, 교육과 같은 유럽디지털혁신허브의 기존 서비스를 지속하되 각 산업의 AI 솔루션 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AI 활용 측면에 집중하고, AI 팩토리 생태계와 긴밀히 협력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예정

- 특히 기업이 AI 팩토리의 연산·데이터 자원과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실험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의료, 제조, 스마트 시티(교통·모빌리티 포함), 농업, 에너지 분야의 테스트·실험 시설이 운영되며 신규 시설은 '26년 설립 예정

- 이 중 테스트·실험 시설은 AI를 테스트·개선할 수 있는 대규모 실제 환경을 제공하여 AI 모델이 검증·최적화되고 보급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

※ (예) 기업이 기존 제조 시스템에 AI 기반의 에너지 소비 예측 모델을 구현할 때 필요한 직원 교육이나 업스킬링 과정을 유럽디지털혁신허브를 통해 확보 가능

■ (유럽 AI 연구개발) AI 솔루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시장 진출까지 기술 개발 프로세스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GenAI4EU 이니셔티브를 통해 동 분야 연구·혁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 EU는 GenAI4EU 이니셔티브를 통해 분야별 첨단 AI 모델 및 솔루션 개발에 약 7억 유로\* 이상을 투입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26/'27년에도 「AI 적용 전략」의 중점 분야로서 유럽 AI 연구혁신과 솔루션 개발 분야를 지속 지원할 계획

- \*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및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의 공모 과정을 거쳐 자금 지원
- 제조업의 생산라인 최적화, 복합 작업에서의 인간-로봇 협업과 로봇 자율성 증진, 사이버방어와 의료 영상 역량 제고를 위한 생성형 AI 개발 프로젝트들이 GenAI4EU 이니셔티브의 대표적인 지원 사례에 해당
- 공공 부문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의 유럽산 생성형 AI 솔루션 도입 가속화를 위한 4개의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 조달, 新 솔루션 개발·도입 가속화, 공공 서비스 개선을 도모
- \* 의사 결정 개선, 내부 행정 절차 간소화,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시민과의 상호작용 개선에 중점
- ※ 그 외 GovTech 인큐베이터 이니셔티브는 '25년~'29년 16개국 21개 GovTech 관련 조직의 공공 조달, 근거 처리, 접근성 지원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및 공동 시범운영을 지원 예정
- 기초 연구 투자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강화·보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집행위는 유럽 AI 연구위원회\*를 설립해 'RAISE(Resource for AI Science in Europe)'라는 형태로 AI 자원을 결집할 계획
- \* (European AI Research Council) '24~'29년 집행위 정책 우선순위와 전략 방향을 제시한 「정책 지침(Political Guidelines for 2024-2029)」의 핵심 이니셔티브에 포함
- 위원회는 ▲차세대 AI 기술 개발을 견인하는 'AI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I)'과 ▲다양한 과학 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는 '과학 분야 AI(AI in Science)'를 모두 지원하여 AI와 과학 각 분야 간 상호작용을 증진할 방침
- ※ 향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Science for AI'와 'AI in Science'의 개념과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RAISE 시범 시범 단계 개시 예정('26)
- 동 전략은 RAISE의 지원을 바탕으로 과학계가 신속하고 책임 있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한편, 관련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기팩토리의 연산 자원 활용 및 연구 협력을 증진하는 개방적 연구 환경을 제공할 예정
- ※ 집행위는 「AI 적용 전략」과 「과학 분야 AI 전략」을 함께 채택하고 상호 연계할 계획

〈 집행위 주요 계획 〉

- 이해관계자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AI 적용 전략(Apply AI Strategy)」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 협의 및 의견 수렴 시작 ('25.04.09)
- 「과학 분야 AI 전략(AI in Science Strategy)」 수립과 관련해 과학계에 증거 자료를 요청하고 맞춤형 의견 수렴 활동 실시 ('25년 2분기)
- 부문별 AI 성과와 핵심성과지표(KPI)를 파악해 「AI 적용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공공 부문 대표자들과 체계적인 논의의 장 조성 ('25년 2~3분기)

- 유럽디지털혁신허브 임무를 조정하여 AI 솔루션의 전략 분야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 ('25년 2~3분기)
  - 「과학 분야 AI 전략」과 「AI 적용 전략」을 공동으로 채택 ('25년 3분기)
  -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26~'27의 연구혁신(R&I)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전략 부문 내 AI/생성형 AI 개발과 보급을 촉진 ('25년 4분기)
  - GenAI4EU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호라이즌 유럽 및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 사이버보안, 에너지, 제약·의약, 전자통신, 항공우주, 로봇, 제조, 공공부문,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를 실시해 약 7억 유로 규모 투자 달성 ('26년 1분기)
- \* EU의 AI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형성 AI 이니셔티브
- 유럽AI연구위원회의 RAISE 시범단계 발족 ('26년)

## 4. AI 스킬 및 인재 강화

■ **숙련 인력이 급속한 기술 변화 대응 및 EU의 미래 번영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시민의 직무와 스킬 구성에 미치는 AI의 영향이 확대되는 추세**

- EU는 「AI 적용 전략」 목표에 따라 인재 부족과 부문 간 스킬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EU 근로자와 시민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스킬·업스킬 지원 조치를 중점 추진할 방침
- 우수하고 포용적인 초기 교육·훈련이 AI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의 기본이므로, 「디지털 교육·스킬의 미래를 위한 2030 로드맵\*」과 「교육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초·중·등 교육의 AI 리터러시 증진, 교육 부문의 전략적·윤리적 AI 활용을 촉진할 계획

\* 2030 Roadmap on the future of digital education and skills \*\* AI in Education initiative

- 이를 바탕으로 '스킬 연합\*'의 4대 사업 영역\*\*, 특히 「STEM 교육 전략 계획(STEM Education Strategic Plan)」을 지원해 역내 AI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근로자·시민의 AI 활용 역량을 업스킬·리스킬하기 위한 조치를 중점 추진 예정

\* (Union of Skills) 역내 인적 자본 개발, 업스킬링·리스킬링 증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행위 이니셔티브('25.3 공식 발족)

\*\* (스킬 연합의 4대 사업 영역) ① 견고한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양질의 삶을 일자리를 위한 스킬 구축 ② 디지털·녹색 전환을 위한 업·리스킬링 ③ EU 전반의 스킬 교류 ④ 인재 유치·개발·유지

■ (AI 전문가 풀 확대)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산업별 스킬 측면의 AI 전문 지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AI 인재풀 확대를 목표로, 역내 차세대 AI 전문가 교육·훈련, 유럽 AI 인재의 유출 방지 및 회귀 장려, 역외 국가의 AI 숙련 인재 유치·정착에 주력할 계획

○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차세대 AI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AI 등 핵심 기술 분야 EU 학위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가상 입학 박람회와 장학금 제도를 마련할 예정

- 이와 관련된 집행위 핵심 조치는 ‘AI 스킬 아카데미(AI Skills Academy)’ 출범으로, 동 이니셔티브는 AI, 특히 생성형 AI의 개발·보급 관련 스킬을 교육·훈련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

- 집행위는 AI 스킬 아카데미를 통해 AI 견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제 프로젝트로 훈련 받은 후 EU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AI 전문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며, 같은 맥락에서 여성 전문가를 위한 복직 제도도 기획

- 학계-업계 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 첨단 디지털 스킬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사회적·산업적 과제 해소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 공동 개발에 청년 인재를 참여시키고 이들의 창의적·혁신적 사고 확장을 지원할 전망

\* European Advanced Digital Skills Competitions

- 이 외에도 AI 스킬 아카데미는 AI 펠로우십\* 제도 지원, 생성형 AI 중심의 시범 학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AI 교육·연구 분야의 우수성을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

\* 고도로 숙련된 역내외 박사 과정생과 역외 청년 전문가의 EU 기관 근무 및 생성형 AI 전문가의 AI 스킬 아카데미 학생 교육·훈련과 관련 연구 증진을 뒷받침

※ AI 교육·연구 분야의 우수성 제고 요인의 한 축으로 기대되는 AI 팩토리의 경우 최상위 연구자를 위한 고도의 역동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략 분야의 AI 솔루션 개발·보급 분야의 협력과 혁신을 촉진할 전망

○ 우수 박사 과정생과 연구자 유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역외 국가 출신의 우수 학생과 연구자 유치 활동에 집중할 예정

- 곧 발표될 「비자 전략(Visa Strategy)」을 통해 「학생·연구자 지침\*」, 「블루카드 지침\*\*」 이행 개선 조치 등을 마련하고, ‘MSCA\*\*\* Choose Europe’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

\* (Students and Researchers Directive) 역외 출신 학생·연구자 유치를 위해 입국·체류 조건 등을 규정

\*\* (BlueCard Directive) 역외 고숙련 노동자 유치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재에 EU 거주권, 사회 보장 혜택 등을 제공

\*\*\* (Marie Skłodowska-Curie action) EU 인재 개발 프로그램으로 연구자의 국가·학제·분야 간 이동을 촉진

- 'MSCA Choose Europe'은 MSCA의 다른 이니셔티브와 유사하게 모든 연구 분야에 개방되어 대학 등 연구 기관이 우수한 해외 AI 연구자를 유치·육성·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프로그램에 공동 자금을 지원
- 이를 통해 MSCA 보조금이 정규직 채용 등과 같은 기관의 장기 전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데, 이는 연구 경력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유럽 연구·혁신 생태계의 선호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유럽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 기존 EU 법률 체계를 기반으로 회원국과 고용주가 AI 전문가를 포함한 역외 국가 출신의 고숙련 인력을 유치·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대표적인 조치로서 'EU 인재 풀\*'의 입법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EU, 회원국, 협력국 간 국제 노동력 이동과 스킬 개발을 촉진하는 '다목적 법률 게이트웨이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재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할 예정
    - \* (Talent Pool) EU 기업의 역외 국가 인재 채용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구상 및 입법 추진 중('23.11월 구축 계획 발표)
    - \*\* (Multipurpose Legal Gateway Offices) '26년까지 주요 협력국에 설치 예정

**■ (업스킬링·리스킬링) 역내 AI 확산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직장과 사회 전반에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위와 회원국이 협력해 각 분야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의 AI 활용 역량 업·리스킬링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 제기**

-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노동 시장의 스킬 수요를 예측해 대응하고 유럽 직장 내 디지털 기술 도입을 포용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촉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유럽디지털혁신허브(EDIHs)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공공기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혁신허브의 스킬·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다양한 기술 및 비기술 직무와 특정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AI 실습 과정을 제공
- 민간·공공 기관이 진행하는 'AI 리터러시 이니셔티브' 관련 자료 DB 운영, 홍보 활동 촉진 등을 바탕으로 AI 리터러시 인식을 제고하고 포괄적 논의를 촉진해 나갈 예정

〈 집행위 핵심조치 〉

- AI 등 핵심 기술에 중점을 둔 EU 학·석·박사 학위 프로그램 확대 지원 ('25년 2분기)
- AI 펠로우십 제도, 견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AI 스킬 아카데미(AI Skills Academy) 출범 ('25년 2분기)
  - 역내외 박사 과정생, 연구원, 해외 거주 청년 전문가 유치를 위한 AI 펠로우십 제도 시행
  - AI 팩토리과 협력해 AI 인재의 최상위 교육·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생성형 AI 중심의 인증 학위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산업계와 공조하여 AI 견습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여성 전문가를 위한 장학금 및 복직 제도 시행
- AI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첨단 디지털 스킬 경진대회(Advanced Digital Skills Competitions) 조직 ('25년 2분기)
- 연구원 대상의 'MSCA Choose Europe\*' 제도 등을 통해 非EU 국가의 숙련된 AI 인재 유치·유지에 기여 ('25년 4분기~'26년)
  - \* 非회원국 인재 유치를 위한 채용 지원 프로그램
- 유럽디지털혁신허브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공공 부문 근로자의 지속적 인 학습 지원 ('25년 2분기)
- AI 문해력 증진을 위해 AI 리터러시 이니셔티브 저장소 등을 활용 ('25년 2분기)
- 기존의 인재 파트너십 및 다목적 법률 게이트웨이 사무국\*을 활용하여 AI 부문의 고속력 非EU 근로자 이동을 촉진하는 시범 프로그램 개시 ('25년 4분기)
  - \* (Multipurpose Legal Gateway Office) 非회원국 인재의 유럽 이주·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26년 출범 예정

5. 규제 준수 및 간소화 촉진

■ 규제 프레임워크는 EU AI 기업 성장과 생태계 혁신에 유리하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EU는 역내 시장 진입을 위한 조건 통일, 국경 간 자유로운 유통, 원활한 AI 단일시장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

- 「시법」은 유럽에서 개발·사용되는 AI가 기본권을 존중하고 안전성과 최상위 품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공급업체의 핵심 경쟁력이자 AI 도입을 촉진하는 역할 담당
  - ※ '24년 8월 1일 발효 이후 '27년 8월 2일 전면 적용 시까지 단계적 시행 예정
  - 특히 맞춤형 위험 기반 접근방식에 기반하여 고위험 AI 애플리케이션에만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 「AI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4가지 등급(허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으로 구분하고, 고위험 AI 시스템의 경우 공급자, 운영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에 위험 관리 시스템,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명세, 로그 관리 등을 의무화

○ 「AI법」의 성공 여부는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에 달려 있으므로, 회원국과 집행위가 AI 사무국(AI Office)을 포함해 현 준비 단계에서부터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집행위는 그 첫 번째 단계로 「AI법」에 대한 중앙 정보 허브 역할로서 이해관계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AI법 서비스 데스크(AI Act Service Desk)\*’를 설치할 계획

\* 관련 규제 체계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으로, 제시되는 답변은 「AI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특히 중소기업 AI 솔루션 제공업체와 도입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둘 방침

- AI 사무국 전담팀이 운영하게 될 ‘AI법 서비스 데스크’는 공공 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상호작용형 플랫폼으로서, 자체 평가 도구, 의사결정 트리와 같이 「AI법」 적용을 돕는 기술 지원 수단을 제공

■ ‘AI법 서비스 데스크’를 설치해 EU의 이해관계자 지원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으로, 동 생태계에는 유럽디지털혁신허브의 정보 제공 및 국가 AI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당국과의 고위험 AI 시스템 개발 협업 기회가 포함

\* 현재 각 회원국에서 AI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26년 8월부터 운영 예정

○ 집행위는 「AI법」, 「범용AI 실천강령」\*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각 회원국의 AI 위원회(AI Board)와 협력하는 한편, 표준 등의 공동 규제적 수단을 통한 법령 준수를 촉진할 방침

\*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의 「AI법」 준수 관련 의무(투명성, 저작권 등)와 책임 등 명시

- ▲「AI법」 시행을 위한 위임법과 지침 제정 ▲「의료기기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과 같은 특정 산업 분야 제품 관련 법규와 「AI법」 간의 일관적인 적용 지원 ▲「AI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상호작용 뒷받침 등 추진 예정

- 표준이 규제 준수 비용을 줄이고 규정 이행과 관련한 효과적·실질적인 방안 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과 협력해 표준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조치 실시 계획

○ 이때 이해관계자는 「AI 협약(AI Pact)」에 참여하여 AI 사무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고 「AI법」 주요 조치 이행 계획 수립을 장려·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

■ 이후 집행위는 시행 단계에서 도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에 「AI법」을 원활하고 간소하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파악 예정

- 「AI 적용 전략」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시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AI 개발·도입 저해 지점과 집행위·각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지원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AI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할 계획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AI법」 준수를 촉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템플릿, 지침, 웨비나, 교육 과정을 제공
  - ※ 그 외 의견 수렴 결과는 「AI법」 등 확대된 디지털 법규 체계(digital acquis)가 중소기업 등 기업의 니즈와 제약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법률 준수를 지원하는 단순 지침·표준의 역할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전망
- 「AI법」의 경우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예정인데, 혁신의 핵심 요소인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조항의 적용시기에 맞춰 필요한 이행 조치가 적시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 집행위 핵심 조치 〉

- EU AI 사무국(EU AI Office)에 ‘AI법 서비스 데스크(AI Act Service Desk)’ 개설 (‘25.07)
- 「AI 적용 전략」과 관련된 공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가 겪는 규제상의 어려움 파악, 「AI법」 준수 용이화, 법령 간소화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절차 개시 (‘25.04)

### III. 결론 및 시사점

■ EU 집행위는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 투자, 데이터 접근성 개선, 전략 부문의 AI 도입 가속화, AI 스킬·인재 강화, 규제 준수 및 간소화를 통해 AI 정책 강화 및 가속화를 도모하는 「AI 대륙 행동 계획」을 공개

-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지속되고 혁신을 통해 AI의 가능성이 확장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기술의 ‘개발’과 ‘활용’ 부문을 모두 선도하는 리더십 구축이 필요
  - 연구, 신기술, 스타트업을 통해 EU의 AI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하려면 EU, 회원국, 지역 협력과 공동의 노력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모델 개발 증진, 경제 전반의 광범위한 기술 도입이 불가피
  - 특히 대규모 단일시장, 숙련 인력 풀과 같은 EU의 자체 강점과 핵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AI에 대한 고유의 접근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 「AI 대륙 행동계획」은 AI 선도 대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5대 핵심 영역으로
  - ①연산 인프라 ②고품질 데이터 ③알고리즘 개발·도입 ④AI 인재·스킬 ⑤단일시장의 규제 간소화를 선정하고, 향후 중점 추진할 정책 조치를 제시
  - (연산 인프라 구축) 유럽 전체에 연산 역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AI 팩토리 구축·확장, AI 기가팩토리 투자, 「클라우드·AI 개발법」 제정을 통한 자원 체계 마련, 에너지 부문의 「디지털화 및 AI 전략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
  - (고품질 데이터 공유 증진) 「데이터 연합 전략」 수립, AI 팩토리와 연계된 데이터 랩(Data Labs) 설치, 유럽 공동 데이터 스페이스 보급 지원을 바탕으로 AI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제공을 확대
  - (알고리즘 개발·도입) 「AI 적용 전략(Apply AI Strategy)」, 「과학 분야 AI 전략」, 유럽디지털혁신허브, GenAI4EU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유럽산 AI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하고 혁신을 촉진
  - (AI 인재·스킬 강화) AI 등 핵심 기술에 중점을 둔 EU 학·석·박사 학위 프로그램 확대, AI 스킬 아카데미 출범, 「MSCA Choose Europe」 제도 등을 활용한 비EU 국가의 숙련된 AI 인재 유치·유지 등 추진
  - (단일시장의 규제 간소화) 「AI법」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AI법 서비스 데스크」를 설치하고 기업의 「AI법」 준수 용이화 및 법령 간소화 가능성을 모색

■ 캐나다 정부의 세계 최초 국가 AI 전략(Pan-Canadian AI Strategy, '17) 발표 이후 전 세계 주요국이 관련 정책을 앞다퉀 수립하며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16.10 수립, '23.5 개정),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 AI 이니셔티브법 2020\*\*」('21.1) 등을 통해 자국의 AI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확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또한 AI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시행

\*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D Strategic Plan

\*\*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

- (중국) AI 개발·응용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체계화된 전략인 「차세대 AI 발전계획\*」('17.7) 수립 이후 「차세대 AI 개발을 위한 3개년 실행계획\*\*」('17.12), 「AI와 실물경제의 심층 융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19.3) 등을 마련하며 전방위적으로 AI 정책 추진

\*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 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2018-2020年)

\*\*\* 关于促进人工智能和实体经济深度融合的指导意见

- (일본) AI R&D 정책 컨트롤타워로 AI기술전략회의('16.6)를 설치하고 「AI 전략 2019」('19.11), 「AI 전략 2022」('22.4),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23.6 개정) 등을 수립하고 R&D, 혁신, 인프라 기반 정비 등을 도모

■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AI) 국가전략\*」('19.12)에서 AI 생태계 조성 및 인재 양성 등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 과제를 도출한 데 이어,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24.9)을 수립해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AI 혁신 비전을 제시

\* 글로벌 선도적 AI 생태계 조성, 전 생애·전 직군 AI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차세대 지능형 정부 전환, 사람 중심 AI 실현 등을 목표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 제시

\*\* AI G3 국가 도약을 통한 글로벌 AI 중추 국가 실현 비전을 수립하고 범국가적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최신 GPU 15배 확충, 4년간 65조원 규모 민간 AI 투자, '30년까지 산업 AI 도입률 70%, 공공 95% 달성, 글로벌 AI 거버넌스 주도) 추진 도모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옥스퍼드 인사이츠\*가 평가한 '24년 정부 AI 준비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88개국 중 3위를 차지하며 AI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

\* (Oxford Insights)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컨설팅 제공기업으로, 매년 각국의 AI 기술·데이터·인프라·정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년 26위, '20년 7위에 이어 '24년 3위 차지(1위 미국, 2위 싱가포르, 4위 프랑스, 5위 영국 등)

- 다만, 국내기업의 약 78.4%가 경영활동에 AI 기술 적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 활용률은 30.6%(제조분야 23.8%) 수준에 그쳐<sup>1)</sup> 기업의 AI 활용 증진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1)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AI 기술 활용 실태 조사, 2024.08.29

※ AI 기술 미활용 기업 중 약 49%는 향후에도 도입을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AI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술·IT 인프라 부족(34.36%), 비용 부담을 지목(23.1%), 기술 불필요(21.9%), 신뢰성 문제(10.1%), 인력 부족(6.1%) 등을, ▲정부에 바라는 정책 과제로 AI 분야 투자 및 R&D 지원(51.4%), AI 인프라 구축(25%), AI 인재 양성(10.2%)를 지목

- 따라서 우리 기업·산업의 AI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국제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인프라 투자·확장, 데이터 생태계 고도화, 산업 특성에 맞는 AI 활용 지원 체계 마련, 인재 양성 등의 조치를 보다 심화하는 것이 중요
  - (인프라) 연구계·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AI 슈퍼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 모색
  - (데이터) 데이터 품질과 접근성이 AI 경쟁력의 핵심 기반에 해당하는 만큼, 개발자와 기업이 고품질 데이터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데이터 공유·유통 생태계 조성 및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가속화
  - (자원 체계) 제조·에너지·서비스 등 각 산업 부문 특성에 맞는 AI 도입 촉진 및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기업 유형별 AI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 (인재) 산학연 협력, AI 특화 교육과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 육성 및 기존 인력 리스킬링 증진 등
- ※ 이와 관련해 지난해 산업부에서 「산업현장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AI+R&D 추진전략」(’24.10)을 수립하고 AI 융합 기술개발 확산 기반 조성, AI개방 혁신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만큼 국내 업계의 AI 활용 증진에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발간현황

## 2025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5-01	인공지능(AI) 시대 인력 개발의 미래	2025.01
2025-0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 방향	2025.02
2025-03	EU 청정산업딜 개괄	2025.03
2025-04	미국 통상정책 재정립을 위한 무역 불균형지수 분석	2025.04
2025-05	EU 「AI 대륙 행동계획」 분석	2025.05

## 2024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4-01	영국 배터리 전략	2024.01
2024-02	수소의 현실적 한계와 대응 정책 고찰	2024.02
2024-03	일본 바이오 산업 과제와 정책 대응 방향 고찰	2024.03
2024-04	디지털 배터리 여권 시행에 따른 기회와 과제 고찰	2024.04
2024-05	미국 반도체 산업 인력 정책 제언	2024.05
2024-06	일본 자동차 산업의 모빌리티 DX 전략	2024.06
2024-07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4	2024.07
2024-08	글로벌 생성형 AI 특허 현황	2024.08
2024-09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혁신 현황	2024.09
2024-10	ASPI 핵심 기술 연구 성과 모니터링	2024.10
2024-11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한계 고찰	2024.11
2024-12	핵심광물 재활용 확대 전략 고찰	2024.12

■ 2023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3-01	미국 바이오제조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023.01
2023-02	중국 산업 디지털화·친환경화 통합 발전 제언	2023.02
2023-03	유럽 넷제로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	2023.03
2023-04	EU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및 재료 수요 예측	2023.04
2023-05	미국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의 비전과 전략	2023.05
2023-06	주요국 반도체 정책과 미 의회 역할 검토	2023.06
2023-07	글로벌 자율주행 정책 및 산업 동향	2023.07
2023-08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 동향	2023.08
2023-09	글로벌 원자력 보급 과제와 대응 조치 고찰	2023.09
2023-10	중국 기술 정책 현황 및 미국의 대응 방향	2023.10
2023-11	EU 우주, 방위 및 관련 민간 산업의 미래 핵심 기술 분석	2023.11
2023-12	미국 핵심·신흥기술 수출통제 조치 고찰	2023.12

■ 2022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2-01	OECD, 국경을 초월한 정부 혁신 달성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2.01
2022-02	2022 글로벌 에너지 의제	2022.02
2022-03	일본 에너지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GX) 방향성	2022.03
2022-04	2050 미래 우주 공간 활용: 영국 국가우주전략의 새로운 기회와 위협	2022.04
2022-05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	2022.05
2022-06	유럽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금속 수요 전망 및 대응	2022.06
2022-07	주요국 제조업 디지털화 정책 추진 현황	2022.07
2022-08	인도-태평양 지역의 수소 개발 비전과 주요 정책 동향	2022.08
2022-09	중국 CCUS 실증·보급 현황 및 정책제언	2022.09
2022-10	미국 에너지부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	2022.10
2022-11	미국 첨단제조 국가 전략	2022.11
2022-12	글로벌 인재 이동 동향 및 시사점	2022.12

## ■ 2021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1-01	유럽 녹색산업정책을 위한 제언	2021.01
2021-02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전략 제언	2021.03
2021-03	기후 주도 무역 아젠다를 위한 제언	2021.04
2021-04	중국 14.5규획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5
2021-05	산업단지의 순환경제 도입 현황 및 전망	2021.06
2021-06	유럽 그린딜에서의 인공지능 역할과 시사점	2021.07
2021-07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① : 반도체 및 배터리	2021.07
2021-08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② : 핵심 광물·소재 및 의약품	2021.08
2021-09	유럽 첨단기술 동향 및 차세대 신흥기술 확산 전망 고찰	2021.10
2021-10	OECD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11
2021-11	IEA 글로벌 수소리뷰 2021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12
2021-12	CX2030 가상현실에 의한 '30년 커뮤니케이션 전환	2021.12

## ■ 2020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0-01	주요국의 연구개발 전략 분석 : 유럽연합(EU)·영국·독일·프랑스	2020.01
2020-02	일본, 제 11차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본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미래상'	2020.02
2020-03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미국의 리더십 확보 전략 : AV 4.0	2020.04
2020-04	주요국 규제 사례를 통해 본 혁신 친화적 규제 접근방식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04
2020-05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OECD의 분야별 정책 권고 주요 내용	2020.06
2020-06	혁신 창출 환경 및 주요 산업별 혁신 변화의 추이와 전망	2020.07
2020-07	영국의 넷제로(Net-Zero)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인력 정책 방향 제언	2020.08
2020-08	EU·독일·호주 수소전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0.08
2020-09	최근 미국과 중국 AI 정책동향 및 시사점	2020.09
2020-10	연구개발·혁신 파이낸싱 동향과 정책 과제	2020.10
2020-11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과 미국의 국가 간 공조를 통한 산업 발전 방안 제언	2020.11
2020-12	디지털 시대의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	2020.12

■ 2019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19-01	「미국 혁신 촉진을 위한 투자수익 이니셔티브」 독서 초안	2019.01
2019-02	주요국 연구자금 지원기관 조직설계 및 거버넌스	2019.02
2019-03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연구개발 동향	2019.03
2019-04	독일의 포괄적인 AI 생태계 조성 전략	2019.05
2019-05	일본의 인공지능(AI) 정책 동향	2019.05
2019-06	OECD 국가의 디지털 혁신 정책 현황	2019.06
2019-07	중국 : 산업 및 혁신강국으로의 도전과 전망	2019.07
2019-08	영국의 전기자동차 스마트 충전기 보급방안	2019.08
2019-09	Horizon Europe(2021-2027)의 산업혁신 프레임워크	2019.09
2019-10	AI 산업 및 국가별 정책 동향	2019.11
2019-11	주요국의 R&D 예산 및 투자 전략(Ⅰ):미국의 NITRD와 EU의 다년도 지출예산(안)을 중심으로	2019.12
2019-12	주요국의 R&D 예산과 투자 전략(Ⅱ):R&D 및 기업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2019.12
2019-13	주요국의 R&D 전략과 예산배분 시스템,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전망	2019.12
2019-14	주요국의 연구개발 전략분석 : 미국·일본·중국·인도	2019.12

※ ~ 2025년 현재까지 발간물은 KIAT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열람 가능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KIAT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Brief

---

<b>발행일</b>	2025년 5월
<b>발행처</b>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단 기술동향조사실
<b>발행인</b>	민병주 원장
<b>기획/진행</b>	문희수 실장, 정희상 선임연구원
<b>주소</b>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산업기술정책단 기술동향조사실 02-6009-3593 www.kiat.or.kr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EU 「AI 대륙 행동계획」 분석